

[오피니언]

월/요/광/장

민경한



보통 광주를 의향, 예향, 미향(味鄉) 등 3향이라고 한다. 의향, 미향에는 동감하지만 예향에는 쉽게 동의할 수 없다. 광주문화수도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시작되어 정치논리로 만들어진 것이다. 광주에 문화수도의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는데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

문화의 사전적 정의는 '기술, 학문, 예술, 도덕, 종교 등 물질적인 문명에 대하여 특히 인간의 내적 정신활동의 소산'이라고 되어 있다. 문화수도가 되려면 시민들이 이 음악, 미술, 체육, 문학 등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즐기며 쉽게 생산하고 접할 수 있고 이를 빛받칠 수 있는 문화인프라나 콘텐츠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내가 본 광주는 이런 요소가 매우 결여되어 있으며 문화 중심도시를 표방하고 나선 부산, 대구, 경주에 비해서도 나은 게 없다. 시내 중심에 커다란 아시아문화 전당 하나 짓는다고 문화도시가 절로 만들 어지지는 않는다. 문화전당의 설계, 위원장 선임, 위원장과 기획단 사이의 논쟁 등

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지난 2004

년 5월 광주시민 601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화수도에 무관심하다고

답변한 사람이 72%였고, 광주의 문화수

광주 '문화수도' 자격 있나?

도 역량에 대해서는 62.6%가 부정적이거나 확신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대형 공연장이나 특급 호텔 하나 제대로 없다. 2002년 월드컵 때 일부 팀이 광주에 특급호텔이 없어 광주에서 숙박을 하지 않고 인근 도시에서 머물다

오고, 히딩크 사단도 8강전에 승리하고자 친 몸을 이끌고 서울로 돌아가 버렸으며 일부 팀은 침대 매트리스를 공수해 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2004년 여름 세계적인 뮤지컬 '카비레'가 대전, 대구, 부산에서는 공연되는데 광주만 빠졌다. 뮤지컬을 좋아하는 나는 기

회사에 문의하였더니 광주에는 제대로 된 대형 공연장도 없고 200여 명의 단원들이 함께 뮤지컬이 없어 공연하기가 곤란하다고 했다. 몇 년 전 아시아개발은행 총회 유치도 특급호텔이 없어 무산되었다고 한다. 1년에 한 번씩 전국을 순회하면서 개최되는 전국변호사대회도 수백 명이 묵을 호텔이 없어 20여 년간 광주에서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책 판매량이나 뮤지컬, 영화 인구를 보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광주의 책 판매량이나 독서 인구가 저

로 배구 연고팀 하나 없다. 대부분의 대도시는 겨울 스포츠인 농구나 배구팀을 연고로 갖고 있어 시민들이 겨울철 프로 스포츠를 즐기고 있다. 그러나 광주, 전남에는 농구나 배구팀 연고가 없어 스포츠 애호가들은 겨울에 농구나 배구 경기를 TV로 시청해야 하며 직접 보려면 전주나 대전까지 가야 한다. 몇 년 전 실업팀 배구감독에게 왜 광주에서는 경기가 잘 열리지 않느냐고 하니까 당시는 배구가 프로화되기 전으로 연고지가 없을 때인데 체육관이 난방이 잘 안 되고 대관료가 너무 비싸 배구협회에서 꺼린다고 하였다.

형식이나 외관에 신경 쓰지 말고 문화란 것이 무엇이고 문화를 누가 생산하고 누가 향유하는가를 고민해 보자. 문화생활이란 거창한 구호보다는 생활 속에서 쉽고 가깝게 느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산업은 21세기 지식산업의 종아이가 블루오션이다.

이왕 문화 중심도시로 지정된 이상 이를 기회로 삼아 인프라를 갖추고 경쟁력을 갖도록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자. 관계 당국도 외관이나 실적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문화도시에 상응하는 콘텐츠를 마련하고 지혜를 모아보자.

〈변호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칼럼

박도영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에 2천여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논란이 있었다. 대법원장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까지 열어 '속인 일이 없다'고 세금을 신고하는 일은 세무사 사무실에 위탁했는데 직원의 사소한 실수로 이번 사건이 터져 안타깝다'고 해명까지 했지만, 논란은 쉽게 진화되지 않고 있다.

조세법 처벌법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탈루한 세금에 일정한 가산세를 붙여서 추

한 반발을 샀다. 이에 대해 대법원장은 '구속주의를 강조하다 보니 과장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 후의 언행은 결코 위 발언들이 실수로 과장한 것 이 아닌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게 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법원장 자신에 대해서는 '10월 만 탈세를 했어도 물러나겠다'고 까지 큰 소리쳤던 것이다. 그러다가 막상 2천만원이 넘는 세금탈루가 알려지자 이번에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세무사 직원의 실수로서 자신이 책임질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 논란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대법원장이 한 말 중 '내가 속

이려고 한 적은 없고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실수한 것'이라는 말은 믿는다. 필

대법원장과 세금탈루

징하는 외에 형사처벌까지는 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하려면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속이기는 등의 행위까지 해야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이 한 세금 탈루는 조세법 처벌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아 탈루한 세액에 대해 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징하면 된다.

그리고 이미 대법원장은 탈루한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대법원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왜 이 문제를 들러싸고 논란이 되지 않고 심지어 퇴임 요구까지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이 대법원장의 평생 언행 때문에 보인다.

이 대법원장은 자신도 약 5년간 변호사로 종사했으면서도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대개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표현해 변호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또 '검사들이 밀실에서 만든 수사기록은 던져버려야 한다'고 해 검찰의 강

자의 경험에 의하면 변호사의 세금신고는 주로 변호사 사무장(또는 경리)과 세무사 직원이 의논하여 처리하고 변호사에게는 신고한 액수만을 보고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대법원장의 이번 세금탈루 문제는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라 대법원장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논란도 조속히 종결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만약 위와 같은 일이 다른 변호사에게 발생하였다면 이 대법원장은 과연 그 변호사가 한 번소를 진실로 믿어 줄 수 있을까? 이 대법원장도 이번 사건을 기하여 다른 사람들도 때로는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알아 두었으면 좋겠다.

한 치의 양보하지 않고 치열하게 싸우는 원고와 피고를 향하여 양쪽에서 조금만 양보하여 화해하라고 권하면서 역지자지(易之思之)를 호소하던 어떤 재판장의 목소리가 새삼스럽게 귀에 울린다.

〈변호사〉

기고

신현주



한국전력은 한 주택에 많은 가구가 입주할 경우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1주택 수가구 제도를 도입하여 많은 고객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대법원장 자신에 대해서는 '10월 만 탈세를 했어도 물러나겠다'고 까지 큰 소리쳤던 것이다. 그러다가 막상 2천만원이 넘는 세금탈루가 알려지자 이번에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세무사 직원의 실수로서 자신이 책임질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 논란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대법원장이 한 말 중 '내가 속

이려고 한 적은 없고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실수한 것'이라는 말은 믿는다. 필

전기요금 할인 받아가세요

하는 대가족요금제도를 시행 한다. 대가족요금제도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포함 구성원수가 5인 이상 이거나 자녀수가 3인 이상 가구에 300kWh 초과 600kWh 사용량에 대하여 사용량 요금

뿐만 아니라 기본요금도 한 단계 낮은 요금을 적용한다.

대가족요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주 또는 주민등록 등본상의 세대원이 한국전력에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같이 주민등록 변경이 빈번한 현실에서 가구수가 5인 미만으로 줄어들 경우 한국전력에 통보하지 않으면 심각한 혼란이 우려되므로 반드시 알려주어 복지할인 제도가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협조해 주었으면 한다.

또한 한국전력은 장애인과 상이유공

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해 주는 복지할인 요금제도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정한 1~3급 장애인), 상이유공자(국가유공자들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정한 1·3급상이자), 독립유

공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하는 대가족요금제도를 시행 한다.

대가족요금제도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포함 구성원수가 5인 이상 이거나 자녀수가 3인 이상 가구에 300kWh 초과 600kWh 사용량에 대하여 사용량 요금

뿐만 아니라 기본요금도 한 단계 낮은 요금을 적용한다.

대가족요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주 또는 주민등록 등본상의 세대원이 한국전력에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같이 주민등록 변

경이 빈번한 현실에서 가구수가 5인 미

만으로 줄어들 경우 한국전력에 통보하지 않으면 심각한 혼란이 우려되므로 반드시 알려주어 복지할인 제도가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협조해 주었으면 한다.

〈한전 해남지점 고객지원팀〉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거용 전기요금에 대하여 2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대상자중에 할인신청을 하지 않아 할인혜택을 보지 못하는 고객이 있는가 하면 신분변동에 따른 자격상실 후에도 요금할인 혜택을 계속 받고 있는 고객도 있다.

요즘같이 어려울 때 전기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당연히 할인혜택을 놓치지 않아 하고 신분변동으로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면 한국전력에 반드시 알려주어 복지할인 제도가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협조해 주었으면 한다.

〈한전 해남지점 고객지원팀〉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거용 전기요금에 대하여 2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대상자중에 할인신청을 하지 않아 할인혜택을 보지 못하는 고객이 있는가 하면 신분변동에 따른 자격상실 후에도 요금할인 혜택을 계속 받고 있는 고객도 있다.

요즘같이 어려울 때 전기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당연히 할인혜택을 놓치지 않아 하고 신분변동으로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면 한국전력에 반드시 알려주어 복지할인 제도가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협조해 주었으면 한다.

〈한전 해남지점 고객지원팀〉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거용 전기요금에 대하여 2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대상자중에 할인신청을 하지 않아 할인혜택을 보지 못하는 고객이 있는가 하면 신분변동에 따른 자격상실 후에도 요금할인 혜택을 계속 받고 있는 고객도 있다.

요즘같이 어려울 때 전기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당연히 할인혜택을 놓치지 않아 하고 신분변동으로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면 한국전력에 반드시 알려주어 복지할인 제도가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협조해 주었으면 한다.

〈한전 해남지점 고객지원팀〉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거용 전기요금에 대하여 2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대상자중에 할인신청을 하지 않아 할인혜택을 보지 못하는 고객이 있는가 하면 신분변동에 따른 자격상실 후에도 요금할인 혜택을 계속 받고 있는 고객도 있다.

요즘같이 어려울 때 전기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당연히 할인혜택을 놓치지 않아 하고 신분변동으로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면 한국전력에 반드시 알려주어 복지할인 제도가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협조해 주었으면 한다.

〈한전 해남지점 고객지원팀〉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거용 전기요금에 대하여 2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대상자중에 할인신청을 하지 않아 할인혜택을 보지 못하는 고객이 있는가 하면 신분변동에 따른 자격상실 후에도 요금할인 혜택을 계속 받고 있는 고객도 있다.

요즘같이 어려울 때 전기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당연히 할인혜택을 놓치지 않아 하고 신분변동으로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면 한국전력에 반드시 알려주어 복지할인 제도가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협조해 주었으면 한다.

〈한전 해남지점 고객지원팀〉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거용 전기요금에 대하여 2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대상자중에 할인신청을 하지 않아 할인혜택을 보지 못하는 고객이 있는가 하면 신분변동에 따른 자격상실 후에도 요금할인 혜택을 계속 받고 있는 고객도 있다.

요즘같이 어려울 때 전기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당연히 할인혜택을 놓치지 않아 하고 신분변동으로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면 한국전력에 반드시 알려주어 복지할인 제도가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협조해 주었으면 한다.

〈한전 해남지점 고객지원팀〉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거용 전기요금에 대하여 2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대상자중에 할인신청을 하지 않아 할인혜택을 보지 못하는 고객이 있는가 하면 신분변동에 따른 자격상실 후에도 요금할인 혜택을 계속 받고 있는 고객도 있다.